

中國少數民族 袍의 研究

정은택 · 박춘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Pao, A Caftan type Subculture Garment in China Nationality

Eun-Taek Jeong · Chun-Sun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

ABSTRACT

Classifying the diverse and complex clothing category of nationality subcultures in China is not a simple task. However, summing up, it can be largely classified that clothing of the northern area is long trousers and short skirt. Among the clothing of Nationality in China, especially, Pao(robe: 袍) has its diversity and colorfulness, whose elements forming its each characteristic feature has enough value to be investigated fully i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reveals that *Pao* in nationality subculture in China can possibly be divided into the four types as *Qipao*(旗袍) in Dongpei area, *Mongopao*(蒙古袍) in Inner Mongolia, *Qipapan*(袷袂) in Xinjiang area, and *Zangpao*(藏袍) in Tibet area. The modes of *Qipao* and *Mongopao* are mainly similar in that they have Diagonally on the right, stand collar in composition, but *Qipao* shows its diversity in collar and slashes, and *Mongopao* also shows diversity in its collar and waistband.

Since western culture flowed into China along with its open door and reform policy, the splendid color and distinctive pattern, decoration, diversified method of compositions and clothing categories of Nationality cultures are disappearing in its their originality and nationality.

Key Words : 袍(Pao, Robe), 蒙古袍(*Mongopao*), 旗袍(*Chipao*), 藏袍(*Zangpao*), 袷袂(*Qipapan*)

I. 序 論

중국의 55개 소수민족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폐쇄된 자연경제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문명의 영향이 적어 서구화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그들만의 독특한 풍속·습관을

보존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국제화의 물결로 소수민족의 풍습은 점차 변화되어 민족전통의 복식을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화의 보호 정책을 취하여 그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고자 하지만, 각 소수민족의 복식이 금후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외부세계에 소수민족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잡지나 화보를 통하여 단편적인 소수민족의 풍습이 소개되는 것에 불과했다¹⁾. 그러다가 최근의 중국의 문화개방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소수민족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복식 및 민속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漢族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던 소수민족의 복식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복식, 나아가 세계 각 민족 복식의 원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소수민족의 복식 중 長衣의 통칭인 袍²⁾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류기준을 정한 후 각 민족별로 袍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 보고 특징을 구분해 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袍는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³⁾을 뜻하며 서양의 kaftan과 같은 의미⁴⁾의 형태적 용어이다. 기원적으로는 긴 옷은 一部式⁵⁾과 衣裳相連式⁶⁾이 있는데 이 중 袍는 一部式의 긴 옷을 의미하였지만, 후대에 이르러 의상상련식도 袍라고 하였⁷⁾, 심지어는 袍에서 길이가 짧아진 변형까지 短袍라고 하고, 긴 저고리까지도 袍라 부르게 되었다⁸⁾. 이렇게 袍의 의미는 확대되어 갔지만 어떤 경우에도 表衣라는 구조적 특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袍는 몸 전체를 감싸는 包衣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상·하가 연결된 寬衣 형태의 의복으로 인체의 가장 外側을 덮어 실용성과 기능성의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의복이다.

袍의 발생은 周代에 보여 처음에는 宴居之服이었으나, 漢末에서 隋唐시기에 이르러 袍는 常服이 되었다. 唐代의 袍에는 補子⁹⁾가 있어 문무간 품급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袍가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수용되어 그들의 기후와 생활습관에 적용하

도록 변화되어 온 것이다.

소수민족 복식에 관한 연구는 손경자⁹⁾, 김은주¹⁰⁾, 박춘순¹¹⁾에 의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손경자는 한국과 몽골족 복식의 양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복식을 종족·계절·남녀성별로 정리·분석하여 복식의 상관관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김은주는 몽골족의 袍制와 깃의 연구를 통하여 蒙古袍와 한국 두루마기와 유사성, 원류를 밝혔다. 박춘순은 중국 소수민족 복식을 중국복식과 한국복식의 원류로 파악하여 중국과 한국의 고대복식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였다.

이외 중국 소수민족 복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영향과 복식·두식·신발·장신구 등에 대한 고찰은 조효순·김희섭¹²⁾, 김영옥¹³⁾, 권현주¹⁴⁾, 정복희¹⁵⁾의 연구가 있다. 김영옥은 문화를 중심으로 민족차이를 분류하여 소수민족복식을 복식·머리형태·신발·장신구 등을 형태와 색상, 문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권현주는 현재 新疆 維吾爾自治區에 살고 있는 維吾爾族·哈薩克族·柯爾克孜族·塔吉克族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과 전통 복식문화를 남녀복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정복희는 소수민족복식을 造形 연구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여 복식의 유형과 세부구조, 장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下衣인 裳과 裙을 연구한 정하신¹⁶⁾과 치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의정¹⁷⁾의 연구가 있다. 정하신은 중국 복식 禮制에 관한 연구에서 中南方지역인 楚國의 남성 특성적 服制, 특히 蔽膝·裳·裙·綬의 禮制가 漢朝 服制에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정의정은 남방 소수민족 치마를 대상으로 유형분류를 시도하여 치마의 종류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민족 치마형태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밝혔다. 김진구·김순심¹⁸⁾은 延邊 조선족을 대상으로 혼례복 연구를 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민족의 복식에 관하여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복식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몸 전체를 감싸주는 全面衣인 중국 소수민족 袍를 대상으로 하여 袍의 착용동기와 분포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中國 少數民族의 着袍地區의 類型分類

1. 東北의 森林地區

동북은 예전에 만주로 사서에서 말하는 "白山黑水"의 본고장이다.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을 포함하며, 滿族을 비롯하여 漢族·蒙古族·朝鮮族·達斡爾族·錫伯族·鄂倫春族·赫哲族·鄂溫克族 등이 거주하고 있다.

지형은 山地·丘陵·盆地로 조성되고 있어 삼림이 무성하고 농업이 발달하였다. 북부의 大小興安嶺은 야생동물과 각종 약재가 풍부하여 소위 東北의 三寶인 人參·鹿茸·貂皮¹⁹⁾로 유명하며, 흑룡강성의 중서부는 광활한 초원지방으로 주요한 목축지구의 하나이다. 송화강·흑룡강·우수리강이 합류하는 소위 "三江平原"은 비옥한 토지여서 양곡 생산지대이며 각종 魚族이 풍부하다. 동북지방은 季節風 기후지대로 봄철은 바람이 많고 건조하고 여름은 덥고 비가 많으며, 가을은 맑고 비교적 짧으며 겨울은 매우 춥고 길다.

2. 內蒙古의 高原地區

內蒙古는 중국 북부변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蒙古族·朝鮮族·回族·滿族·達斡爾族·鄂溫克族·鄂倫春族 등이 거주하고 있으나, 몽골족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

內蒙古 지방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세는 높지만 평탄하며, 남에서 북으로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부는 고원, 동부는 초원, 서부는 절벽이며, 사막의 면적은 매우 크다. 기후는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분명하며, 건조하고 일조량이 충분하며 기온 차가 크고 풍사가 심하다. 봄은 짧고 여름은 상쾌하고 겨울은 혹한이며 길다.

대홍안령에서 시작되는 대초원은 "天蒼蒼, 野茫茫, 風吹草低見牛羊"²⁰⁾라고 하며, 양·말·소·낙타 등은 사육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삼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內蒙古는 야생동물의 천연보호고이며,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3. 新疆의 盆地地區

중국의 서북지방은 甘肅省·寧夏·新疆자치구를 포함하며, 維吾爾族을 비롯하여 哈薩克族·柯爾克孜族·錫伯族·塔吉克族·烏孜別克族·塔塔爾族·俄羅斯族 등이 거주한다.

고래의 사적 중에 나오는 서역은 바로 서북지방을 말한다. 천산은 신강 중부에 있으며 분지와 곡지를 이루어 대표적으로 투르판 분지가 있으며, 그 남부는 海面 이하로 내려간다. 신강 남부는 산세가 관할하고 험준하며, 알타이산과 천산사이에 좁쌀 분지가 있고, 천산과 곤륜산 사이에 타림분지가 있으며, 타크라마칸사막은 중국 최대의 사막이며 실크로드의 요충지역이기도 하였다.

경내에는 하류도 많고 기후는 전형적인 건조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강수량이 서북은 많고 동남은 적다. 온도 차이도 매우 커 천산 이북은 한온대이고, 이남은 난온대이다. 북부는 겨울이 길고 추우며, 남부 투르판 분지는 지세가 낮아 중국 최고의 더운지방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 西北地區는 지역이 광활하여 자연자원이 풍부함으로 중국 주요 목축지구의 하나로, 細毛羊·伊犁馬가 유명하고, 포도·수박 등 과일이 풍성하며 각종 약재와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4. 西藏의 高山地區

西藏은 중국에서 西藏 藏族自治州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며, 거주민은 藏族을 비롯하여 漢族·門巴族·珞巴族·回族·蒙古族·納西族 등이 있다.

西藏은 고칭 羌·戎이라 하였으며, 7세기 松贊干布가 西藏을 통일하여 唐朝와 친밀한 관계를 건립하였다. 唐은 西藏에 정치·문화·경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元朝에 이르러 西藏이 중국 영토가 되어 주둔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明代와 清代로 이어지면서 현대에는 藏族자치구가 형성되었다.

西藏은 지세가 높고 험난하여 청장고원은 해발 4000미터 이상으로 세계의 지붕이라 하며, 고원의 기후는 기온 차가 크고 藏北고원은 건조 한랭하며, 동남지방은 인도양 계절풍 영향으로 비교적 溫暖濕潤하다. 西藏 기후의 특징은 기온 편차가 크고 일조

량이 길어 복사가 강렬하고 강수량이 적으므로 긴 겨울과 봄은 건조하고 여름은 덥지않다. 西藏의 목축지구는 중국 5대 방목지구의 하나로 綿羊·山羊·牦牛를 주로 사육하고 있다. 농업지구의 작물은 보리·밀 등이며, 삼림면적이 넓어 목재 생산량이 풍부하다. 또한 야생동물·약용식물이 유명하며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표 1>은 중국 着袍地區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1> 着袍地區의 지리환경적 특성

지구	특성	지리	기후	특산물
동북지구	평원·삼림	계절풍	인삼·녹용·초피	
내몽고지구	사막·초원	대륙성	양·말·소·낙타	
서북지구	사막·분지	사막·건조	細毛羊·伊犁馬	
서남지구	고원·산지	한냉·건조	면양·산양·野牛 (야크)	

III. 中國 少數民族 袍의 類型

1. 旗袍類(Qipao)

旗袍는 滿族를 비롯한 동북지구에 거주하는 민족이 착용하는 포의 양식이다. 旗袍는 16세기 중반 滿族부녀의 민족복식으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袍의 형태는 허리선이 들어가지 않고 직선적인 寬身長大한 直筒長袍이고, 발등을 덮는 길이로 좌우 트임 혹은 전후·좌우 트임이 있는 신체를 감싸는 형태이다. 이는 원래 기마민족인 滿族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袍의 옆선을 터놓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복식양식과 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주며 窄袖와 開衩는 滿族 旗袍양식의 특징으로 정착된 것이다. 旗袍의 재질도 생활과 밀접하여 수렵민은 수렵에서, 어렵민은 어렵에서 획득한 獸皮나 魚皮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漢族과의 접촉을 통하여 布帛을 사용하게 되었다.

滿族의 淸朝시에서는, 남자는 旗袍에 坎肩과 馬褂를, 여자는 旗袍에 坎肩을 입게 되었다. 이후 滿·漢 생활습속의 융합에 따라 漢族부녀자도 기포를 입게되면서 漢族 정서에 맞게 변화되었다. 旗袍는 신해혁명(1912년) 후 漢族을 비롯한 기타 민족

들이 입게 되는 과정에서 허리에 밀착되고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緊身窄袖로 변화되었다. 나아가 품이나 길이나 수구의 모양, 혹은 트임길이에 변화를 가져와, 양복의 유행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旗袍가 부녀의 혼례복으로 정착되면서 오늘날 중국의 민족복으로 존속되고 있다.

2. 蒙古袍類(Mongopao)

蒙古袍는 大襟에 緣飾이 있으며 袍身은 넓고 長袖에 立領 右衽이며, 도련에 트임이 없다. 腰帶에 小刀를 패용하고 장신구들을 양쪽에 늘어뜨린다. 대개 獸皮를 원료로 한 장포를 입으면서 탈착에 편리하고 보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고, 기능성에서도 생활주거지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창출해낸 것이 그들 복식의 특징이 되었다.

蒙古袍는 元代 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여러 민족의 우수한 장점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오랜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수정되어 정착된 것이다. 袍의 색도 黑·紅色을 위주로 하여 紫·黃·綠·靑色이 많이 사용되었다. 蒙古長袍의 독특한 양식은 구성상 트임이 없고 무늬를 사용하지 않는다. 트임이 없는 대신 도련이 넓어 기마·방목에 편리하게 구성되었다.

腰帶는 蒙古袍의 특징으로 남자와 미혼 여자에게 필수적인 장식품이며, 圍腰나 圍裙이라고 하며 색은 紅·黃·藍·赤·綠色 등 선명한 색을 사용하여 長袍의 색과 對照를 이루도록 한다. 재료는 布나 綢緞이 사용되었으며 기마 시에 척추를 곧게 보호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3. 袷袂類(Qipan)

袷袂는 維吾爾族을 비롯한 신강지구 소수민족이 착용한다. 이 지역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민족이 많으며, 생활형태는 오아시스 농민형은 여성이 이슬람 특유의 베일을 가리고 다니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하다. 특히 남녀 모두 흑색이나 검색의 수수한 단색을 선호한다. 반면 유목민형은 복식이 다채롭고 자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維吾爾族이 착용한 袷袂는 구성상에 있어서 깃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매는 길며 트임은 없고 자수요대를 매어 입는다. 袷袂의 재료는 棉·絹·布로 남녀가 같고 색은 黑·白·藍·靑·灰色을 입는다. 維吾爾族은 전통적으로 黑色을 숭상하여 부녀복식에도 黑色의 긴소매 對襟袷袂를 입고, 白布수건을 둘러 黑白 대립적인 조화가 매우 고풍스럽다. 남자복식은 무릎 길이의 長袍 袷袂으로 無紐扣이며 대개 줄무늬로 만든다. 腰帶는 花紋刺繡紋樣의 方巾을 사용하여 黑色의 袷袂에 長腰巾을 두른다. 이외에 哈薩克族·塔塔爾族·塔吉克族·柯爾克孜族·烏孜別克族 등도 겹번 양식과 비슷한 '托尼'라고 하는 장포를 착용한다. 그러나 재질에 있어서는 대개 면·낙타모를 사용하며 단지 모자에 각 민족의 특징이 나타난다.

4. 藏袍類(Zangpao)

西藏지구는 雪山高原에 위치하여 이곳에 주거하고 있는 藏族의 생활은 외부와의 교류가 비교적 적어 오랜 기간 동안 독특한 방식으로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별한 민속문화를 형성하였다²¹⁾. 원래 藏族의 분포지역은 서남지구에 속하지만²²⁾ 지리환경적 요인이 북방지구와 흡사하여 長袍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곳은 지형이 험난한 고

한 지대로 기후변화가 심하며,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곳의 藏族을 비롯한 門巴族·珞巴族들은 북방민족과 같이 長袍를 착용한다.

藏族는 無領·斜襟·右衽이며, 속에 立領 長袖短褂를 입고 한쪽 팔을 내어놓아 노동에 편리하게 한다. 藏袍는 袍의 길이와 소매 길이가 길고 넓다. 藏袍는 일반적으로 착용자의 신장보다 길어 착용 시 衣領을 두상에 얹은 다음 腰帶를 매고 의령을 내리면 앞부분에 공간이 형성되어 소지품을 휴대하거나 갓난아기도 넣어 보호할 수 있다. 재료는 흑색 氈氈(방모)나 각색의 絲織으로 제작한다.

藏族·土族·裕固族·門巴族·珞巴族은 藏袍樣式을 착용한다. 여밈은 左衽·右衽이 공존하고 민족 습속에 따라 포의 도련에 트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트임이 없는 대신 기마 방목에 편리하도록 도련이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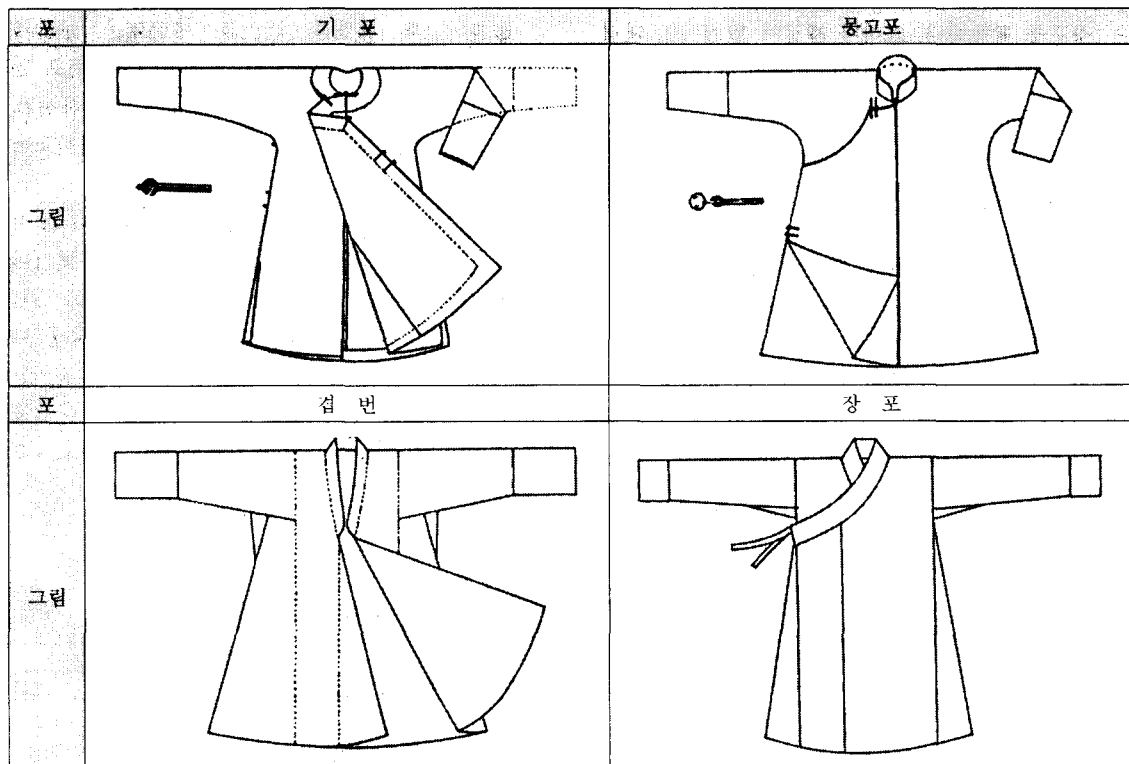
藏袍는 일년 내내 착용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오른쪽 소매를 벗거나 혹은 양쪽 소매를 모두 벗어 腰帶에 집어넣고 입는다. 더울 때는 毛面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추울 때는 안으로 향하게 입으며, 袍의 길이와 소매 길이는 매우 길고 넓어 休眠 시에 침구의 역할도 한다. <표 2>는 중국 소수민족의 袍를 유형분류한 것이고, <표 3>은 四大 袍의 기본구조를 도해한 것이다.

<표 2> 袍의 유형분류표

	旗袍類	蒙古	袷袂類	藏袍類
그림				
착장형태				

착용법	無腰帶	布帛腰帶	布帛腰帶	方巾腰帶
착용민족	滿族 赫哲族 達斡爾族 鄂倫春族 鄂溫克族	蒙古族·東鄉族 保安族·裕固族 撒拉族·塔塔爾族	維吾爾族 哈薩克族 柯爾克孜族 錫伯族·塔吉克族 烏孜別克族	藏族 門巴族 珞巴族
깃형태	大襟右衽	大襟右衽	對襟	對襟右衽
여밂법	紐扣	紐扣	紐扣	無扣
개차형태	左右開衩	無開衩	無開衩	無開衩
직물류	布帛類	布帛類·皮革類	皮革類·布帛類	布帛類·氈氈·皮革類

<표 3> 중국 소수민족 四大 袍의 기본구조



V. 결 론

중국 소수민족의 袍를 四大地區로 구분하여 지역 에 따라 구성양식·재질·봉제형식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滿族을 비롯한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은 旗袍형식의 袍를 착용하였다. 旗袍의 특징은 大襟·立領에 窄袖이고

衣邊이 넓고 다양한 花邊장식이 있다. 도련 양옆에 트임이 있고 요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旗袍의 재질은 유목생활을 청산한 滿族은 布帛을 위주로 하였고, 赫哲族은 魚皮를 사용하며, 鄂倫春族과 鄂溫克族은 狗皮袍를 입는다.

內蒙古지방의 몽골족은 蒙古袍를 착용한다. 淸朝를 세운 滿族은 몽골족에게 滿族服飾인 旗袍를 착

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旗袍는 원래 蒙古복식에서 비롯되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蒙古袍와 양식이 유사하다. 즉 大襟·立領에 窄袖이고 袍의 花邊장식도 같으나, 단지 袍身이 풍성하고 도련이 넓어서 도련 좌우에 트임이 필요 없으므로 布帛腰帶를 둘러 몸을 단정하게 정리한다. 그러나 부녀자는 결혼하면 腰帶를 매지 않고 長坎肩을 袍위에 착용한다. 蒙古袍의 재질로는 농업지구에서는 布帛을 사용하며, 목축지구에서는 獸皮袍를 착용한다.

維吾爾族을 비롯한 서북지방의 소수민족은 袷衫이라는 長袍를 착용한다. 이 袷衫은 對襟·無領이 일반적이며 앞길이가 서로 교차되지 않는 開襟상태로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方形花帶를 대각선으로 접어 허리에 둘러 腰帶로 삼는다.

西藏지구에 거주하는 藏族 등의 藏袍는 斜襟·右衽·肥腰가 특징이며 開襟는 없고 布帛腰帶로 정리한다. 여밈은 한 쌍의 紐帶(웃고름)로 겨드랑에서 여민다. 藏族는 분포지역이 광활하여 농업지구와 목축지구·도시지역이 다르고, 계층에 따른 구별도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농업지구와 부유층은 布帛長袍에 毛皮로 襟을 두르며, 목축지구에서는 氈氍나 皮革의 長袍에 布帛으로 衣邊에 襟을 둘러 장식한다.

袍를 착용하는 민족들은 주로 북쪽에 위치하여 기후분포와 의복형태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즉 겨울혹한의 기후에 처하는 북방민족들의 방한을 목적으로 포를 착용하여 북방소수민족의 袍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北袍 또는 胡袍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중국 소수민족 복식문화는 北袍·南裙문화로 규정지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원인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長袍를 착용하는 민족은 지리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혹한의 기후조건에서 생존을 위한 대응책으로 고안해 낸 그들만의 고착된 문화임을 알 수 있었으며, 중국의 氣候와 袍를 입는 민족의 분포도는 관련이 있었다.

참고문헌 및 미주

- 『廣雅』·『史記』·『釋名』
- 徐万邦·邢慶富, 『中國少數民族文化通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6.
- 劉先照·李禕輝 主編, 『中國少數民族地區旅游大全』, 重慶出版社, 1992.
- 邢莉 主編, 『中國女性民俗文化』, 中國檔案出版社, 1995.
- 권현주, “실크로드 周邊의 民族服飾” 服飾 21, 韓國服飾學會, 1995.
- 김영옥·황춘섭, “中國少數民族服飾(I)” 長安論叢11, 長安專門大學, 1991.
- 김은주, “中國 및 蒙古帝國의 袍制와 民族服飾에 나타난 衿(웃깃)에 관한 研究”, 服飾 19, 韓國服飾學會, 1992.
- 김진구·김순심, “中國朝鮮族의 服飾研究(1)”, 服飾 20, 韓國服飾學會, 1993.
- 박춘순, “中國少數民族의 服飾研究(1)”, 服飾 26, 韓國服飾學會, 1995.
- 손경자, “韓國 蒙古服飾의 相關性 研究(1)”, 服飾 14, 韓國服飾學會, 1990.
- 오춘자, “아시아 Kaftan 樣式에 관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정복희, “中國少數民族 服飾의 形成要因과 造形”, 生活科學研究誌 10-1, 忠南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1997.
- 정의정, “中國 少數民族 치마에 대한 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 정하진, “中國 服飾禮制에 관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 조효순·김희섭, “中國少數民族 服飾의 考察(1)”, 服飾 18, 韓國服飾學會, 1992.
- 1) 정의정, “中國 少數民族 치마에 대한 研究 -類型分類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2.
- 2) 邢莉 主編, 『中國女性民俗文化』, 中國檔案出版社, 1995, p.108.
- 3) 『釋名』, 『釋衣服』, 袍 丈夫著下至跣者也.
- 4) 吳春子, “아시아 Kaftan 樣式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3.
- 5) 本來 一部式은 유목민족의 獸皮衣에 기원을 두고 있다.
- 6) 衣裳相連式은 웃옷인 衣와 아래옷인 裳을 서로 이어 만든 것으로, 深衣가 그 예이다.
- 7) 『釋名』, 『釋衣服』, 婦人 以絳作衣裳 上下連 四起施緣 亦曰袍.
- 8) 『廣雅』, 『釋器』, 袍 長襦也.
- 9) 孫敬子, “韓國·蒙古服飾의 相關性 研究(1)”, 服飾 (14), 韓國服飾學會, 1990.
- 10) 김은주, “中國 및 蒙古帝國의 袍制와 民族服飾에 나타난 ‘衿(웃깃)’에 대한 研究 -13世紀를 中心으로-”, 服飾(19), 韓國服飾學會, 1992, pp.209-240.
- 11) 朴春順, “中國少數民族의 服飾研究(1)”, 服飾(26), 韓國服飾學會, 1995.
- 12) 趙孝順·金姬燮, “中國少數民族 服飾의 考察(1)”, 服

- 飾(18), 韓國服飾學會, 1992, pp.81-96.
- 13) 金榮玉·黃春燮 “中國少數民族服飾(Ⅰ)”, 長安論叢(11), 長安專門大學, 1991.
金榮玉, “中國少數民族服飾(Ⅱ)” 長安論叢(13), 長安專門大學, 1993.
- 14) 권현주, “실크로드 주변의 민족복식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服飾(24), 韓國服飾學會, 1995.
- 15) 鄭福姬, “中國少數民族服飾의 形成要因과 造形”, 忠南生活科學會誌(10), 忠南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1997, pp.54-70.
- 16) 鄭夏信, “中國服飾禮制에 관한 研究 -蔽膝, 裳, 裙, 綬를 中心으로-” 誠信女子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 17) 鄭義靜, 앞의 책
- 18) 김진구·김순심, “中國朝鮮族의 服飾研究(1)”, 服飾(20), 韓國服飾學會, 1993, p.191.
- 19) 鄭福姬·朴春順, 앞의 책, p.27.
- 20) 劉先照·李禕輝 主編, 『中國少數民族地區旅游大全』, 重慶出版社, 1992, p.4
- 21) 『中國少數民族地區畫集總刊』, 民族出版社, 1985, p.11.
- 22) 徐萬邦·祁慶富, 『中國少數民族文化通論』,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6, p.76.